

FINA, 세계수영대회 점검위해 광주 방문

〈국제수영연맹〉

오늘부터 3일간 사무총장 등

경기장 시설·준비상황 체크

오픈워터 여수 개최 논의도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 시설 점검과 대회준비상황 청취 등을 위해 오는 15일 국제수영연맹(FINA) 대표단이 광주를 찾는다. 광주시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1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코넬 마르클레스쿠 FINA 사무총장, 외긴 푸을 시설위원장과 FINA 임시플 후원사인 밀 씨폴의 임원 트레비 티파니 등 4명이 광주

를 찾는다.

마르클레스쿠 사무총장은 지난 열일곱 번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직접 주관해 서 치른 전문가이고, 외긴 푸을 시설위원장은 수영대회 경기장 시설의 설계를 맡고 있는 건축가 출신이며, 밀씨폴은 FINA 주관 각종 대회 경기장 시설 공사와 후원을 맡은 회사다.

시와 조직위는 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들의 자문을 받아 설계를 완성하거나 경기장을 건립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FINA시설규정 미준족 등의 미비점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FINA 대표단은 15일 오후 입국과 동시에 광주를 찾아 광주수영대회 조직위원

인 윤장현 광주시장과 만찬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윤 시장은 광주대회의 세계적인 관심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참가가 중요하다고 보고, 북한 참여를 위한 FINA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은 16일 오전에는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내 회의실에서 경기장 현황 도면 브리핑, 광주대회 주요추진상황 설명,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경기장으로 내정된 남부대수영장(경영·다이빙), 진월국제테니스장(수구), 영주종합체육관(아티스틱스), 여수(오픈워터수영), 광주 도심(하이다이빙) 경기장 예정 현장 곳곳을 둘러보기로 예정돼 있다.

시와 조직위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FINA의 신뢰를 얻고, 신뢰를 바탕으로 오픈워터수영 경기장 여수 유치문제, 하이다이빙 후보지 문제 등에서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낼 복안이다.

한편, 광주세계수영대회는 2019년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31일간 진행되며, 208개국 선수와 임원 등 1만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국가대표들이 참가하는 선수권대회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 동안, 수영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스선수권대회는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14일간 열린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화물운송 불법행위

한달동안 특별단속

광주시, 합동단속반 구성

광주시는 화물 운송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계획’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화물운송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광주시와 자치구, 화물운송협회, 주선협회 관계자 등 23명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 5개반을 구성했다.

합동단속반은 관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총 6310개사 중 10%인 631개사를 선정해 조사한다.

그동안 잦은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중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행위 ▲화물운송업·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방생주차 금지의무 위반 행위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



지난 13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류준호(주립) 대표, 김병승 LG전자 에어솔루션연구소장, 윤장현 광주시장, 김보곤 DK(주) 대표, 강선형 한국공기안전원장, 노광철 에어랩 대표.

광주시·기업들, 미세먼지 걱정없는 교육환경 협력

65개 학급 공기청정기 등 지원

광주시와 지역대기업 등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13일 오전 광주시장직비즈니스룸에서 LG전자, DK(주), (주)랩코, 에어랩, 한국공기안전원 등과 ‘실내공기질 개선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해 김병승 LG전자 에어솔루션연구소장, 김보곤 DK(주) 대표, 류준호(주립) 대표, 노

광철 에어랩 대표, 강선형 한국공기안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개선효과를 분석하고 LG, DK, 랩코 등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65개 학급에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측정기를 포함한 소모품을 무상 지원하게 된다.

또 에어랩은 제품의 청정화 능력 평가 등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한국공기안전원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교육교재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는 시범사업 시행으로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초등학교 1학년 이하 유아 및 아동들에게 실내 미세먼지 안전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급 규모, 이용인원, 신체적 활동도 등에 따른 제품의 청정용량, 소모품 교환주기 등을 분석해 실내미세먼지 안전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에 정책적 건의도 할 계획이다. 윤 시장은 “우리의 삶을 이어주는 공기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묻어두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라는 확산에서 ‘공기 산업’을 시작할 지 6개월여를 맞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공기의 질을 실질적으로 측정하고 데이터 구축, 제품 질 향상, 나아가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쾌적한 환경도시 만들기 총력

사회 공헌·시민과 소통 최선”

안용훈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광주환경공단은 시민이 행복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환경 파수꾼’인 광주환경공단 안용훈(사진) 이사장은 14일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광주를 위해 모든 직원이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6월 안 이사장 취임 이후 공단이 각종 오수와 음식물, 분뇨, 생활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광주지역 환경기초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2002년 창립된 광주환경공단은 광주 제1·2하수처리장과 효천하수처리장, 광주 제1·2음식물자원화시설, 광역위생매립장, 위생분뇨처리장,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또 광주천 자연형하천과 영산강 시설물 및 승촌공원을 관리하고 있다.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하루 약 73만 t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하루 330t)도 처리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 생산된 배합사료의 원료인 단미사료(하루

36t)를 판매해 연 3억원 이상의 수익도 내고 있다. 지난 2016년 공인 감사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측정결과 폐기물 재활용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90%에 달해 모범 공단으로 손꼽히고 있다.

안 시장은 공단 경영방침으로 ▲근본을 맑게 한다는 의미의 정본청원(正本淸源) ▲현장소통 ▲혁신 지속 ▲사회공헌을 제시해 전면적 소통과 혁신을 이끌고 있다.

그는 “최대 현안이었던 상무소각장 폐쇄를 지혜롭게 해결했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인수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환경시설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률을 33.9%까지 올렸고 이를 통해 약 83억원의 연간 운영경비를 절감했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취임 후 적극적인 지역사회 공헌활동과 시민소통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시민단체, 유관기관, 공공기관 등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생태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환경교육,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의 환경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6개 환경시민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 내 환경 현안을 함께 모색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 밖에도 공단은 광주천 생태계교란식물 제거활동, 사람의 임직원 헌혈증 기증·전달, ‘사랑의 재활용품 나눔장터’ 운영 및 수익금 기부, 각종 행사에 모인 쌀을 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있다.

안 이사장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시설을 완벽하게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오염측정업체 등 47곳 집중 점검

광주시는 오는 15일부터 한달간 관내 환경전문공사업체, 측정대행업체, 환경관리 대행기관, 환경컨설팅 회사 등 47개사에 대해 지도·점검을 한다.

이들 업체는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 폐수 및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을 줄이는 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 환경오염물질의 오염도 측정 및 환경시설 관리 등 컨설팅하고 있다.

시는 이들 업체가 환경보전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기술인력 적정 여부, 측정장비 보유 기준 및 운영

의 적정 여부, 대기·수질·실내 공기질 등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실험분석의 적정 여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지 점검은 측정분석의 전문성을 감안해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안에 따라 고발 또는 면허취소 등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측정대행업체 15곳을 점검해 6개 업체를 적발하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영광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가능
최근 리모델링 완료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3천만
매가 9천4백

직매 010-6670-9800

평택 초역세권 개발부지 매매

송탄역 도보 1분
건축 허가 완료

최고의 투자처

건축 분양 최고

임대 걱정없음

개발시 순수익 (10억)

▶ 매가 8억

직매 010-6670-9800

경매 (주)대신경매

동구 계림동 상가 (어린이집)
토지 109평 건물 183평
3층 건물 (시설종류)
감정가 5억7천 → 최저가 5억7천

1) 서구 벽진동 (주택)
토지 176평 건물 46평
감정가 2억4,700만 → 최저가 2억4,700만

2)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상가)
토지 62평 건물100평
주차원비,평수대비 가격저렴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2억9천

3) 서구 금호동 (원룸빌딩)
토지 63평 건물 120평
월세 400만 예상
감정가 5억4,300만 → 최저가 5억4,300만

4) 나주 경현동 (상가주택)
토지 600평 건물 411평
금성산 산책로 길
감정가 17억7천 → 최저가 7억9천

5) 강진군 칠량면 (공장 및 창고)
토지 1,600평 건물 673평
감정가 11억 → 최저가 4억6천

010-7384-7800

경매교육

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

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

3) 경매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 공동 사무실 쓰실분

(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책상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 사용하실 분
010-6670-9800

010-6670-9800